2019년 10월 12일 시행 / 2019년 서울시 7급 필기시험

# 국어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김춘호 교수**(종로공무원·경찰학원)

**1.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① 핥다[할따]
② 밟게[밥 : 께]
③ 얽거나[얼꺼나]
④ 맑고[막꼬]

[정답] ④
[유형] 어문규정 - 표준발음
[해설] 표준발음법 11항의 '다만'을 보면,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발음법 23항에 따라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① 표준발음법 10항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발음법 25항에 따라 어간 받침 'ㄼ, ㄾ'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핥다'는 [할따]로 발음해야 한다.
② 표준발음법 10항의 '다만'을 보면,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리고 표준발음법 25항에 따라 어간 받침 'ㄼ, ㄾ'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밟게'는 [밥:께]로 발음해야 한다.
③ 표준발음법 11항의 '다만'을 보면,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발음법 23항에 따라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얽거나'는 [얼꺼나]로 발음해야 한다.

**2. 밑줄 친 절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나는 <u>영수가 만든</u> 음식이 정말 맛있다.
② <u>영수가 한</u>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③ 나는 <u>영수가 애쓴</u> 사실을 알고 있다.
④ <u>영수가 들은</u> 소문은 헛소문이었다.

[정답] ③
[유형] 문법 - 문장론(관형절)
[해설] ③ 문장을 분석하면 '나는 사실을 알고 있다'와 '영수가 애쓰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동격 관형절이다.
[오답] ① 문장을 분석하면 '나는 음식이 정말 맛있다'와 '영수가 음식을 만들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② 문장을 분석하면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와 '영수가 질문을 하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④ 문장을 분석하면 '소문은 헛소문이었다'와 '영수가 소문을 듣다'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3. 밑줄 친 부분에서 선어말 어미 '-겠-'의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조만간 비가 <u>오겠다.</u>
② 지금쯤 철수가 집에 도착하여 밥을 <u>먹겠다.</u>
③ 철수가 이번에는 자기가 <u>가겠다고</u> 하였다.
④ 8시에 출발하면 10시쯤에 <u>도착하겠구나.</u>

[정답] ③
[유형] 문법 - 형태론(선어말어미)
[해설] ③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오답] ①, ②, ④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참고] -겠- 「어미」
「1」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 잠시 후면 대통령 내외분이 식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2」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 나는 시인이 되겠다.
- 이번 달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

「3」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 그런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4」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 내가 말해도 되겠니?
-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 너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
- 네가 와 주면 고맙겠구나.

「5」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 별사람을 다 보겠다.

**4.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옐로카드(yellow card), 스태프(staff), 케이크(cake)
② 가디건(cardigan), 뷔페(buffet), 캐러멜(caramel)
③ 냅킨(napkin), 점퍼(jumper), 초콜렛(chocolate)
④ 팡파레(fanfare), 크로켓(croquette), 마사지(massage)

[정답] ①
[유형] 어문규정 - 외래어표기법
[해설] ‘yellow card’는 ‘옐로우카드’가 아니라 ‘옐로카드’가 맞다. ‘staff’는 ‘스탭’이 아니라 ‘스태프’가 맞다. ‘cake’는 ‘케익’이 아니라 ‘케이크’가 맞다.
[오답] ② ‘cardigan’는 ‘가디건’이 아니라 ‘카디건’이다.
③ ‘chocolate’은 ‘초콜렛’이 아니라, ‘초콜릿’이다.
④ ‘fanfare’는 ‘팡파레’가 아니라 ‘팡파르’이다.

**5.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유형] 문학 - 현대시
[해설] ‘푯대’는 깃발의 운명적 한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아우성, 손수건, 마음’은 모두 깃발을 의미한다.
[참고] ※ 유치환, <깃발>
• 해제: 이 시는 ‘깃발’에 영원한 이상 세계를 향한 동경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깃발은 푸른 해원으로 표상된 이상세계를 갈망하지만 깃대에 묶여 있기에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인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백로처럼 날개를 편 애수’ 등으로 비유하고 있다. 깃발에 대한 비유들이 시의 문맥 속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발하면서 이상향에 대한 외경과 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애를 형상화하고 있다.
• 주제: 영원한 이상향을 향한 그리움

**6.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② 그는 여직껏 그 일을 모르는 척했다.
③ 두리뭉실하게 말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봐.
④ 살짝 주책스러운 면이 있지만 인품은 훌륭한 사람이다.

[정답] ②
[유형] 어문규정 - 표준어
[해설] '여태'는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 어떤 행동이나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옴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애태'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은 '여태껏'과 '입때껏'이다. '여직껏'은 비표준어이다.
[오답] ① 2015년 12월 발표(2016년 1월 1일 시행)된 '표준어 추가'에 따라 '말아, 말아라/마, 마라'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③ 2011년 현재 표준어인 '두루뭉술하다'와 별도의 표준어로 '두리뭉실하다'가 추가로 인정되었다.
④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는 데가 있다는 의미로 '주책맞다'와 '주책스럽다'가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의 '있다'는 경우에 따라 ㉠동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① 나는 오늘 집에 있는다.
② 할아버지는 재산이 많이 있으시다.
③ 눈이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④ 비도 오니 그냥 집에 있자.

[정답] ②
[유형] 문법 - 형태론(품사)
[해설] ②의 '있다'는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오답] ①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③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④의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참고]
있다01
[Ⅰ] 「동사」
[1]
「1」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2」 사람이 어떤 직장에 계속 다니다.
[2]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3]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Ⅱ] 「형용사」
[1]
「1」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2」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3」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벌어질 계획이다.
「4」 재물이 넉넉하거나 많다.
「5」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6」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강조·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2]
「1」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는 상태이다.
「2」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 머무르거나 사는 상태이다.
「3」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 상태이다.
「4」 어떤 처지나 상황, 수준, 단계에 놓이거나 처한 상태이다.
「5」 개인이나 물체의 일부분이 일정한 범위나 전체에 포함된 상태이다.
[3]
「1」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
「2」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3」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상태이다.
[4] 앞에 오는 명사를 화제나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 문어적 표현으로, '에', '에게', '에서'의 뜻을 나타낸다.
[5] 사람이 어떤 지위나 역할로 존재하는 상태이다.
[6] 이유나 가능성 따위로 성립된 상태이다.

**8. 사이시옷 표기가 모두 옳지 않은 것은?**

① 붕엇빵 - 공붓벌레
② 마굿간 – 인삿말
③ 공깃밥 - 백짓장
④ 도맷값 - 머릿털

[정답] ②
[유형]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사이시옷)
[해설] 한자 '마구(馬廐)'와 한자 '간(間)'이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따라서 '마굿간'이 아니라 '마구간'이 올바른 표기이다. 발음이 [인사말]이므로 사잇소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다.
[오답] ① 합성어의 뒤 단어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사이시옷을 쓸 수 없으므로 '붕어빵'이 옳은 표기이다. '공붓벌레'는 한자어 '공부(工夫)'와 고유어 '벌레'의 합성어이고, 발음이 [공부뻘레]이므로 사이시옷을 써야 한다.
③ '공깃밥'은 한자어 '공기(空器)'와 고유어 '밥'의 합성어이고, 발음이 [공기빱]이므로 사이시옷을 써야 한다. '백지장'은 한자어 '백지(白紙)'와 한자어 '장(張)'이 결합헌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쓰면 안 된다.
④ '도맷값'은 한자어 '도매(都賣)'와 고유어 '값'의 합성어이고, 발음이 [도매깝]이므로 사이시옷을 써야 한다. '머리털'은 합성어의 뒤 단어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사이시옷을 쓸 수 없으므로 '머리털'이 옳은 표현이다.

**9.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 ㉠ )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지요. ( ㉡ )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 ㉢ )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 ㉣ )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 | ㉠ | ㉡ | ㉢ | ㉣ |
|---|---|---|---|---|
| ① | 그런데 | 그랬더니 | 그래 | 그러니까 |
| ② | 그런데 | 그래 | 그랬더니 | 그러니까 |
| ③ |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래 | 그러니까 |
| ④ | 그랬더니 | 그런데 | 그러니까 | 그래 |

[정답] ③
[유형] 문학 - 현대소설 / 비문학(접속어)
[해설] ㉠의 앞을 보면 '나'는 아저씨가 예배당에 오지 않을까 고개를 들어 봤더니, ㉠ 뒤에서 기대대로 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에는 '그랬더니'가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 뒤에서 아저씨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지 않기에 의아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에는 '그런데'가 가장 적절하다. ㉢ 앞에서 내가 웃어 보여도 웃지 않는 아저씨에게 ㉢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으므로 ㉢에는 '그래(그리하여)'가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 뒤에서 내가 손을 흔들자 고개를 숙이는 아저씨의 모습이 나와 있으므로 ㉣에는 '그러니까'가 가장 적절하다.
[참고]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해제: 이 작품은 남녀평등, 자유연애와 같은 근대적 가치가 수용되었음에도 여성의 개가(改嫁)를 금하는 봉건적 인습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인연을 맺지 못한다. 이러한 결론은 옥희와 죽은 남편을 위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성의 자유 의지를 억압하는 사회적 인습의 폭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참고로, 이 작품은 여러 차례 영상화가 되는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제목이 바뀐 1961년 작품이 대표작이다.
• 주제: 사회적 인습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

**10.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① 삶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드러나 있다.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③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는 회한이 드러나 있다.
④ 좌절해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정답] ②
[유형] 문학 - 현대시
[해설] '끼룩거리면서'와 '낄낄대면서'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보여주는 시어이다. 따라서 ② 세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가 정답이다.
[참고]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해제: 이 시는 19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폭압적 현실에서 떠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작품으 로 영화를 보면서까지 애국심을 강요받았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청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끼룩', '낄낄' 등의 음성 상징어로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로 설정된 화자는 애국가 영상 속의 새들이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 하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좌절감을 드러낸다. '흰 새 떼들'과 '우리'의 처지를 대조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암울한 현실로 인한 좌절감

**11.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맞도록 언어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기존 어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는 경우, 아예 새로운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예전에는 '통닭'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치킨'이라고 한다.
③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말로 '아점'이라는 말이 나타났다.
④ 천연두가 사라지면서 '마마'라는 말도 이제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정답] ①
[유형] 문법 - 의미론(의미의 변천)
[해설] '이모'는 원래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인데,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이모'로 부르는 것은 의미의 확대에 해당한다.
[오답] ② 고유어인 '통닭'이 외래어인 '치킨'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③ '아점'은 '아침 겸 점심'을 줄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④ '마마'라는 말이 이제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휘의 소멸에 해당한다.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훈민정음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소리의 체계에 따라 문자의 모양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음에서 조음 위치가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지도록 기본자와 가획의 원리에 따라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① 목청, 'ㅇ'과 'ㅎ'
② 윗잇몸, 'ㄴ'과 'ㄷ'
③ 센입천장, 'ㄱ'과 'ㅋ'
④ 여린입천장, 'ㅅ'과 'ㅈ'

[정답] ②
[유형] 문법 - 고전 문법 / 음운론
[해설] 밑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조음 위치'와 '가획의 원리' 2가지이다.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ㄴ'과 'ㄷ'은 모두 조음 위치가 '윗잇몸'이고, 'ㄴ'이 기본자, 'ㄷ'이 가획자이므로,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오답]
① 'ㅇ'과 'ㅎ'은 기본자와 가획자의 조건은 충족하나 'ㅇ'은 목청소리가 아닌 여린입천장 소리이므로 동일한 조음 위치라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③ 'ㄱ'과 'ㅋ'은 기본자와 가획자의 조건은 충족하나 이 두 글자는 조음 위치가 모두 센입천장이 아니라 여린입천장이다.
④ 'ㅅ'과 'ㅈ'은 기본자와 가획자의 조건은 충족하나 'ㅅ'은 조음 위치가 윗잇몸이고 'ㅈ'은 센입천장이므로 동일한 조음 위치라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13.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명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부사]
② 자기가 먹을 만큼 먹어라. [의존 명사]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조사]
③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부사]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명사]
④ 혀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형용사]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동사]

[정답] ④
[유형] 문법 - 형태론(품사)
[해설] '혀가 굳어'의 '굳다'는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사람됨이 굳고'의 '굳다'는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오답] ① '오늘'의 경우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이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면 부사이다.
② '만큼'의 경우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있으면 의존 명사이고, 체언 뒤에 있으면 조사이다.

③ '비교적'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용언을 꾸며주면 부사이고, 조사와 결합하면 명사이다.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가장 다른 하나는?**

<보기>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여요.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유형] 문학 - 현대시
[해설] '나무'는 회상의 매개체이자, 이몽룡을 비유하고 있는 시어이다. '검은 물'은 춘향의 화신으로 저승의 춘향을 의미하고, '구름'은 극락의 춘향을, '소나기'는 죽은 후에도 모습이 변하여 임을 찾아가는 춘향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은 '나무'이다.
[참고]
※ 서정주, <춘향 유문 - 춘향의 말 3>
• 해제: 이 시는 춘향이 옥중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이 도령에게 남기는 형식을 빌려 쓴 시이다. 1연의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은 3연의 '저승'이라는 시어와 만나서, 그것이 예사로운 인사말이 아님을 알게 한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초연할 수 있는 것은 저승이 자신의 사랑보다 먼 '딴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죽음의 세계조차도 그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춘향의 이 도령에 대한 사랑이 윤회 사상을 통해 생사와 시공을 초월하여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 시공(時空)을 초월한 사랑

**15.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바짝 <u>존</u> 찌개를 다시 끓였다.
② 가을이라 그런지 은행잎들이 정말 <u>노라네.</u>

③ 앉은 자세가 곧바라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④ 생김은 저러나 마음은 매우 유순하다.

[정답] ③
[유형]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해설] ③의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은 '곧바르다'로 '르'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곧바라야'가 아니라, '곧발라야'가 적절하다.
[오답] ① '존'의 기본형은 '졸다'로 'ㄹ'탈락 용언이다. 따라서 '존'은 적절하다.
② '노라네'의 기본형은 '노랗다'로 'ㅎ'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노라네'는 적절하다. 참고로 '노랗네'도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다.
④ '저러나'의 기본형은 '저렇다'로 'ㅎ'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저러나'는 적절하다.

**16. <보기 1>에 이어질 글을 <보기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1>
구글은 몇 년 전부터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보기 2>
㈎ 다시 말해 독감과 관련된 단어 검색량을 보면, 실제 독감 환자 수, 독감 유행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해보았더니, 검색 빈도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 수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이는 검색 빈도수가 개인의 생활을 반영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보여주지만, 여기에 개인의 유전정보와 진료 정보 등이 합쳐지면 세계 시민의 보건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 그 결과, 매년 독감 시즌마다 특정 검색어(독감 이름, 독감 예방법 등) 패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④
[유형] 비문학 - 독서(순서 배열)
[해설] <보기1>은 독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연구 실시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라)가 <보기1>의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라)에서 말하고 있는 패턴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와 비교하고 있는 (나)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그

리고 그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가)가 온 뒤, 마지막으로 구글의 주장이 담긴 (다)가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7. <보기>의 ㉠~㉣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꼭두쇠'는 남사당패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꼭두쇠는 남사당패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이다. 단원 가운데 ㉠규율을 어긴 단원에 대해 형벌을 명령하는 것도 꼭두쇠이다. 꼭두쇠가 ㉡노쇠하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단원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단원들의 ㉢추대로 새로운 꼭두쇠를 ㉣선출한다.

① ㉠ - 規律
② ㉡ - 老衰
③ ㉢ - 推戴
④ ㉣ - 先出

[정답] ④
[유형] 어휘 - 한자어
[해설]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을 의미하는 단어는 '선출(選出: 가릴 선, 날 출)'이다. 참고로 '선출(先出: 먼저 선, 날 출)'은 과일, 푸성귀,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의 맨 처음에 나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① 규율(規律: 법 규, 법 률):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
② 노쇠(老衰: 늙을 로, 쇠할 쇠):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음.
③ 추대(推戴: 옮길 추, 일 대): 윗사람으로 떠받듦

**18. <보기>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러한 음악의 한배를 있게 한 실제적 기준은 호흡이었다. 즉, 숨을 들이쉬고 내쉼이 한배의 틀이 된 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 방법을 선인들은 양식척(量息尺)이라고 불렀다. '숨을 헤아리는 자(尺)'라는 의미로 명명된 이 방법은 우리 음악에서 한배와 이에 근거한 박절을 있게 한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시계가 없었던 당시에 선인들은 건강한 사람의 맥박의 6회 뜀을 한 호흡(一息)으로 계산하여 1박은 그 반인 3맥박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한 호흡을 2박으로 하여 박자와 한배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면 서양인들은 우리와 달리 음악적 시간을 심장의 고동에서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맥박을 기준으로

하여 템포를 정하였다. 건강한 성인은 보통 1분에 70회 전후로 맥박이 뛴다고 한다. 이에 의해 그들은 맥박 1회를 1박의 기준으로 하였고, 1분간에 70박 정도 연주하는 속도를 그들 템포의 기본으로 하였다. 그래서 1분간 울리는 심장 박동에 해당하는 빠르기가 바로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인 안단테로 이들의 기준적 빠르기 말이 되었다.

① 주장을 먼저 제시한 뒤 다양한 실례를 들어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②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검토한 뒤 제3의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③ 대상의 특성을 분석한 뒤 대조하여 대상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제시한 뒤 통념을 반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답] ③
[유형] 비문학 - 독서(서술 방식)
[해설] 이 글의 '서양인들은 우리와 달리 음악적 시간을 심장의 고동에서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를 보면 서양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대상을 특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미디어의 첫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쇄술의 발전은 지식 제도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학교와 교사의 기능에서 생겨 났다. 다시 말해서, 학교와 교사 없이도 독학을 할 수 있는 '책'이 나왔던 것이다. 독서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제도, 또는 기억이라는 개인의 습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기억의 관습에 가한 변화는 인쇄술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업적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당연히 책이 양산되고 책값 역시 저렴해졌을 뿐 아니라, 주해자/주석자의 중요성은 반감된 채 다양한 책들이 서점과 서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다.

①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② 교사의 권위는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줌으로써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③ 독서 대중의 비판과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사회는 지식의 독점과 권력화에 매진하게 되었다.
④ 저자의 권위가 높아짐으로써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독서 대중이 탄생하였다.

[정답] ①
[유형] 비문학 - 독서(이어질 내용 추론)
[해설] 이 글의 마지막을 보면 여러 텍스트를 대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자연스레 지식 사회에 대한 비판과 검증이 가능해졌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 뒤에는 비판과 검증, 그리고 그것의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비판과 검증으로 인해 '독점적인 독점적인 학설이나 학파의 전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특정 학설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도 긴 생명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음'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0. 사자성어 중 뜻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하나는?**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③ 문경지교(刎頸之交)
④ 단순호치(丹脣皓齒)

[정답] ④
[유형] 어휘 - 한자성어
[해설] '단순호치(丹脣皓齒)'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오답] ① 지란지교(芝蘭之交): 지초(芝草)와 난초(蘭草)의 교제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맑고도 고귀한 사귐을 이르는 말.
② 금란지계(金蘭之契):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③ 문경지교(刎頸之交):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중국 전국 시대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